

중소 34% “연구·개발 인력 부족”

대한상의 407곳 조사

중소 제조업체 3곳 가운데 1곳꼴로 연구·개발(R&D)인력이 부족해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체 407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현재 R&D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업이 전체의 33.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부족하지 않다는 중소기업은 66.3%였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의 R&D인력 부족 현상이 41.9%로

가장 심각했고, 이어 철강(35.1%), 전자(33.9%), 화학(33.3%), 자동차 부품(29.6%), 조선(29.2%), 반도체(29.0%) 순이었다.

응답기업 24.1%는 연구인력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차질을 빚는 적 있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 중 ‘특히 R&D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54.0%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현재 평균 12.1명의 R&D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년 내 신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44.7%로 파악됐다.

/연홍뉴스

“쇼핑몰 창업 준비 함께해요”

아카데미 국비 무료교육

쇼핑몰아카데미(www.shopping-mallacademy.co.kr)가 쇼핑몰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 재직자 ‘직장인 국비교육’,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오는 5월 10일부터 광주수원위탁교육센터(중앙IT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한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교육)는 정부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직장인 국비

교육’은 고용보험가입 사업장(3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장인을 비롯,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하의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이다. 창업교육비용의 최대 80%를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쇼핑몰아카데미 교육생들은 매일 11만6000~31만6000원의 교육비를 노동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 기간 중 인큐베이팅(창업보육센터) 과정 중 온라인 전자상거래판매 수익으로 월 30~100만원을 벌 수 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어린이날 선물 ‘딸기’ 추천합니다

광주신세계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패션스트리트 딸기 매장에 딸기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앙증맞은 상품들을 내놓아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대형백화점 가정의 달 고객맞이 분주

세일·사은품·패션쇼·만화 캐릭터 포토타임...

선물 사고 이벤트 즐기고 ‘일석이조 쇼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5일 어린이날 어린이 용품 구매 고객에게 선물 증정은 물론, 당일 한정세일과 함께 갖가지 볼거리가 가득하다. 행사를 잘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을 마련하고 자녀에겐 좋은 추억도 남길 수 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광주신세계=5일까지 아동장르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어린이용 미니가방을 증정한다.

또 5일 단 하루, 아동장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8층 사은행사장에서는 제프 쿤스 헬름풍선과 스티커를 준다. 이날 1층 힐링 가든에서는 ‘뽀로로’, ‘뽕뽕이’ 등 캐릭터 인형들이 나와 어린이들과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8층 행사장에서는 오후 2시와 오후 4시 30명 한정으로 빙스 쿠키를 증정한다.

8층 이벤트홀에서는 5일까지 어린이날 선물 특집전을 열고 특가상품을 판매한다. 블루독, 알로봇, 링크뮤 등이 참여한다. 블루독 티셔츠 2만5000원, 바지 4만원, 알로봇 티셔츠 1만5000원, 바지 2만9000원 등이다. 8일 어버이날 스페셜 선물전으로 파슬 버버리 시계 69만원, 닥스 토트백 44만8000원, 지갑 19만8000원에 파는 행사도 열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6층 행사장에서는 5일까지 어린이날 선물상품 제안전으로 아디다스 키즈 트레이닝복 세트 5만9000원, 바람막이 점퍼 5만9000원, 블루독 베이비 셔츠 2만2000원, 바지 3만2000원, 프렌치티셔츠 2만원 등에 판매한다. 5일 어린이날 특별이벤트로는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 아동매장 구매고객대상 선착순 350명에게 어린이뮤지컬 ‘우당탕탕 아이쿠’ 공연을 진행하며 오후 1시부터는 당일 구매영수증 지참 고객을 대상으로 솜사탕을 증정한다. 또 어린이날 특집 연

예인과 함께하는 ‘Happy Day in Lotte’를 주제로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6층 아동매장에서 피에로와 함께하는 신기한 매직쇼 공연, 페이스페인팅, 연예인 캐릭터 매장 순회 등이 펼쳐진다.

8일 어버이날에는 세시봉 공연을 리메이크 한 ‘뽀로로’의 세시봉 콘서트가 진행되고, 14일에는 2층 매장에서 오후 2시와 4시30분 팝페라 듀엣 미니콘서트가 열린다.

◇현대백화점 광주점= 5일 어린이날에는 제2회 ‘Baby & Kids 아이클럽 패션쇼’가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1부는 마술쇼, 2부는 댄싱 공연팀의 공연도 준비됐다. 7층 아동 유아매장에서는 어린이 고객을 대상으로 페이스페인팅 서비스가 무료로 진행된다. 아이클럽 고객 중 당일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엔 쿠폰카드2 시사회 초대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80명이다. 아이클럽 신규 회원들은 쿠폰카드 주인 공이 그려진 클리어파일을 받을 수 있으며 15일까지 7층 아동 유아매장에서는 구매 상품을 쿠폰카드 스페셜 쇼핑백에 담아주는 이벤트도 열린다.

13일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로 F1 차량전시회도 진행된다. 1층 특설행사장에 단 하루 전시되며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도 증정된다. 기간 중 응모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10월에 열리는 F1 전일권을 4명에게 증정한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쇼핑! 넌 백화점 가니? 난 멀티숍 간다

‘남들과 다르게 살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멀티숍이 뜨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쩍 늘기 시작한 멀티숍은 최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15곳 이상 성업중이며 전남대 후문에도 5곳이나 들어섰다. 더불어 첨단과 수완지구 등 도심에서 떨어진 동네까지 파고드는 추세다.

멀티숍이란 한 매장 안에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패션전문점으로, 다양한 신발 브랜드 중심에서 인기브랜드의 의류를 모아놓은 종합 멀티숍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멀티숍들은 널리 알려진 브랜드도 갖췄지만 우리나라에 정식 매장이 없거나 직수입 되지 않는 브랜드가 주를 이룬다. 인터넷의 발달로 상품에 대한 정보교류와 해외구매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지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사이 젊은 층들이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다양한 아이템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신발에서 의류까지 다양=광주지역 멀티숍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 미국 브랜드들이다. 의류로는 ‘아베크롬비’(Abercrombie)와 ‘홀리스터’(Hollister), ‘트루릴리전’(True Religion)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신발로는 ‘나이키’(Nike)와 ‘뉴발란스’(New Balance) 등이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빈티지 캐주얼 의류인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는 20대 초반 젊은층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멀티숍을 이끄는 주도 아이템이다. 특히 광주와 대구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국내에 정식매장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미국 현지에서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형식이다. 따라서 국내 캐주얼 의류와 비교하면 다소 가격이 높다. 하지만 아직 많은 수가 입지 않아 희소성이 있는데다 개성 있는 디자인 덕분에 빠르게 젊은이들의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충장로에서 6년째 멀티숍을 운영 중인 강모(33)씨는 “운영 초기에는 대부분 미국 브랜드 ‘폴로’(Polo Ralph Lauren)를 취급했지만 지난해부터 멀티숍마다 폴로 대신 아베크롬비와 홀리스터를 주문하기 바쁘다”고 말했다.

◇백화점보다 저렴=멀티숍 제품들은 이른바 병행수입된 제품들로, 수입자가 다를 뿐 품질은 같다. 트루릴리전의 경우 백화점 정식매

장에서 판매하는 것에 비해 같은 물품이 최소 30% 이상 저렴하다. 백화점 직원마저 멀티숍으로 구매하러 온다는 것. 나이키나 뉴발란스는 이미 유명한 브랜드지만, 젊은층 고객들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은 아이템을 찾는다.

충장로 K멀티숍을 운영하는 황모(44)씨는 “예를 들어 5월에 나이가 전 세계에서 발매하는 제품이 1000개라면 국내 정식 매장에서 발매하는 제품은 300여개 밖에 안된다”며 “개성을 중요시 하는 젊은 소비자들은 발매되지 않은 700여개 제품을 찾게 되고 멀티숍은 취향에 맞게 이들 제품을 현지 도매상을 통해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젊은 소비자는 ‘필요한 것을 꼭 사겠다는 욕구’가 강한 편”이라며 “멀티숍은 정식수입매장에 앞서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품목을 발빠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고 멀티숍의 인기를 설명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있는 K멀티숍에 고객들이 붐비고 있다. 의류부터 신발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이 멀티숍은 유행 아이템을 발 빠르게 취급해 젊은층 고객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hi-pass 한국도로공사

가장 빠른 길도 바로바로!
분기점에서 어느길로 가는지 정확하게!
가장 싼 주유소도 한눈에!
휴게소 모를 사고, 처리해결도 척척!
휴게소 정보도 한번에 OK!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스마트해집니다

고속도로 정보 실시간으로 다 뜨네~)

고속도로가 스마트하면 당신의 길이 편안해집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통방송, 인터넷, 휴대폰, ARS는 물론 스마트 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편안한 여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립니다.